

# “경주에 내 뼈를 묻으리라”

## 윤경렬옹 자서전 ‘마지막 신라인...’

“마음 여리고 하는 일마다 미숙하기 짝이 없는 윤경렬이 만만 길 돌아 천년의 부름을 따라 예까지 왔습니다. 저의 제주로 되는 일이 아니오니 부디 보살피어 누가 뭐야 없게 하소서!” 70년대 중반 환갑을 맞은 윤경렬 옹은 남산에 올라 새삼 옷깃을 여미고 신라의 부처님들께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기도덕분이었을까, 이후 2년 반만에 윤옹은 일본인 직원이 1926년 <남산의 불적>을 펴낸 후 한 번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제대로 조사된 바 없었던 남산에 대한 종합보고서 <경주남산 고적순례>를 펴내고야 말았다.

20세기 초두에 태어나 근 한세기를 살아온 우리문화의 산증인. 경주 남산 사당을 은뚱으로 실정한 ‘영원한 신라인’으로서 불허진 신라문화의 알

리고 우리 풍속인형 만드는 일에 평생 바친 향토사학자 고철 윤경렬 옹(81)의 평생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마지막 신라인 윤경렬>(학교재 판)은 저물어 가는 문화유산의 해를 더욱 뜻깊게 한다.

이 책은 제1부 ‘청바위 언덕’에서 1916년 함경북도 주물에서 태어나 어린시절부터 전문문화와 그림을 좋아하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제2부 ‘인형수업’에서는 일본 히카타의 나카노코 인형연구소에서 보낸 1년동안의 이야기를 담았다. 일본에서 돌아와 우리풍속을 찾아다니며 우리다운 풍속인형만들기에 애쓰던 시절 이야기는 제3부 ‘우리의 풍속을 찾아서’에, 우리민족화를 찾아서 활동했던 천년 고도 경주시절의 이야기는 제4장 ‘천년의 만남’에서 소개된다.



◇안입지에서 아이들에게 안입지의 입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윤경렬옹.

### 평생 풍속인형 만들고 신라문화 알리기에 열정 바친 향토사학자 우리것 사랑 이야기

제5장 ‘흰머리 신라인’에는 경주 남산 고적 순례와 문화재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인형이 된 지인(知人)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문화와 민족에 대한 윤옹의 지론이 담겨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우쳐 준 마음의 스승 고유섭선생, 일본인들이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던 우리 민족의 정수를 그려서 소개하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와 민족에 대한 윤옹의 지론이 담겨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우쳐 준 마음의 스승 고유섭선생, 일본인들이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던 우리 민족의 정수를 그려서 소개하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와 민족에 대한 윤옹의 지론이 담겨있다.

윤옹은 49년 풍속 인형연구소 고철사(古靑舍)를 설립해 우리의 얼굴과 풍속을 기초로 인형과 기념품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기도 하다. 경주의 성산(聖山)이자 신라의 불상이 산재한 남산을 그가 지금까지 6백여차례 오르내린 것도 한국인의 얼굴을



마지막 신라인 윤경렬

찾아 인형으로 형상화 하기 위함이였다.

우리 전통문화를 일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살아온 윤경렬 옹의 삶은 역사책의 행간에 서린 보이지 않는 작은 역사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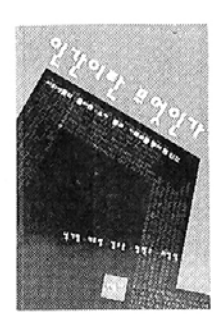
“이제 먹고 살기도 그만해졌는데 총칼을 코앞에서 휘두르지 않을 뿐 서양문화가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외국의 어린이나 젊은이들의 문화는 옷차림에서부터 듣는 음악, 쓰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서양적 일색이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무언가 정부의 생각이나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윤경렬옹의 우려는 21세기를 앞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다시한번 되돌아 보게한다.

이은자 기자

# “종교와 철학에 비친 인간관”

경희대 철학과 교수 공동 ‘인간이란 무엇인가’ 펴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석가, 예수, 플라톤, 철학, 생물학, 종교학 등 모든 것들이 이 근원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최근 출간된 <인간이란 무엇인가>(민음사 판)는 사회생물학, 플라톤, 유가, 불교, 기독교를 통해 본 인간관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없는 목적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범적 실천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생물학적 인간관’에서 인간은 ‘유전자의 폭주각시’라고 정의되는가 하면 ‘플라톤의 인간관’에서는 인간은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동물적인 중간자로 제안된다. 인간은 무생물, 동식물 등의 유기체보다 한단계 더 발전된 지적성을 갖춘 ‘유기체적 존재’라는 것이 유가의 인간관이다.

이 책은 남기영, 허우성, 김수중, 정영교, 최정식 등 경희대 철학과 교수들이 인문학의 길을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안을 찾아 나선 사문을 불교의 이상적 인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정론적, 목적론적, 운명론적 인간론을 말하는 ‘기독교적 인간관’은 나의 존재, 행동 기능, 목적은 신의에해 결정됐지만 나는 나의 존재를 전제로 내가 실현할 수

관’은 인간을 범부와 사문의 두종류로 나누고, 오욕락과 축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범부의 길을 포기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안을 찾아 나선 사문을 불교의 이상적 인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정론적, 목적론적, 운명론적 인간론을 말하는 ‘기독교적 인간관’은 나의 존재, 행동 기능, 목적은 신의에해 결정됐지만 나는 나의 존재를 전제로 내가 실현할 수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철학과 세계관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담은 이 책은 인간관에 대한 책이기는 하지만 인간 문제를 만 아니라 사회문화학적 세계관, 불교철학, 플라톤철학, 유가철학, 기독교철학 등에 대한 입문서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은)

## 한-중 문화교류사 ‘한눈에’

조영록교수 황해 뱃목 학술탐사 논문집 출간



<한중문화교류사 남방해로>(국학자료원 판)는 남방해로를 통한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관계사를 집중적으로 조망한 책이다.

이 책은 지난해 동국대학교 개교90주년과 동국사학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중국 강남지역과 한중교섭’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골간으로 조영록교수(사학과)가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증보하여 다시 편집한 논문집이다.

과의 관계, 고려 출신 의동대사가 중국 천태종 16조로서 활동한 내용, 절충지역의 불교개량, 소통과의 고려사 및 고려에 대한 비판문제 등을 다루었다. 제2편 ‘한중교섭사’에서는 9~10세기에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해상활동, 10~11세기 <선화봉상고려도경>의 저자 서공의 남방해로를 통한 한중 왕래,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시대적 배경 등을 고찰하고 있다. 제3편 ‘황해 뱃목학술탐사’와 그 외의에서는 황해를 동아시아의 지중해로 보고 그 성격과 구명요자 하였으며, 뱃목탐사의 역사적 의의를 구성했다.

제1편 ‘절충불교와 한중교류’는 남방해로와 한중교류의 관계를 조망하고, 제2편 ‘한중교섭사’에서는 9~10세기에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해상활동, 10~11세기 <선화봉상고려도경>의 저자 서공의 남방해로를 통한 한중 왕래,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시대적 배경 등을 고찰하고 있다. 제3편 ‘황해 뱃목학술탐사’와 그 외의에서는 황해를 동아시아의 지중해로 보고 그 성격과 구명요자 하였으며, 뱃목탐사의 역사적 의의를 구성했다.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2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연이다	일 타	효 립
3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립	행 원
4	티벳사자의 서	류 시 화	정신세계사
5	한국사학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6	수평으로 가는 길	이 재 열	대원전자
7	한국사학의 주련	권 열 한	전원문화사
8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진	동 지
9	삼이제신 불타 삼이제신 그리스도	틱 낙 한	한 민
10	깨어있는 마음읽기	보 천	불 지 사

구입문의: (02)737-0695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엮음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혼탁해져 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 마음의 순도를 높여 줄 부처님 가르침을 한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점점 메달라 가는 현대인의 가슴을 촉촉히 적어 삶의 환희로움을 가져다 줄 이 책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율사이며 시인 석성우(파계사 주지)과, 역시 시인인 석지현스님이 대소 승경전과 선사어록을 두루 섭렵

현대인 꼭 읽어야 할 불교명구

해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명구들만 간추려 뽑은 것이다.

인생과 수행, 진리의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참 삶이란 어떠한 것이며, 피안을 향한 불자들의 생활과 수행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설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반목과 질시 없이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의 진리를 설하고 있다. <민족사 5천원>

변하지 않는 것은... 김수남 지음

유럽문명의 그늘에 가린 아시아 문화유산의 진면목에 새롭게 눈뜨게 해주는 책이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이다.

민족문화의 탐구로 유명한 사진작가 김수남씨가 아시아 오지 탐사기록을 담은 이 책은 한해의 절반을 아시아 오지에 머물며 소수민족들의 삶과 제의를 사진과 글로 갈무리 해온 12년 작업의 결실이다. 티벳보다 더 고유한 티

아시아 오지 사람들의 삶과 의례

벧 문화의 원형이 살아있는 히말라야의 오아시스 인도 라다크, 오랜 독재로 외부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의 나라 미얀마의 고도(古都) 만달레이 등이 생생한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일반적인 관광여행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오지 9개 지역의 사람과 삶, 의례를 내밀하게 담고 있다. <석필 9천5백원>

일본속의 백제문화 2 송형섭 지음

교토의 우즈마사(太秦)에 있는 광릉사에 가면 일본 국보1호인 백제불상 미륵보살반가상이 있고, 호류지(법동사)의 대보장전(大寶藏殿)에 전시된 예술품들은 우리문화의 전시장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다. 특히 대보장전 북창(北倉) 특별실에 안치돼 있는 백제관음상을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일본 속의 백제문화2>를 펼치면 우

우리유산 찾아떠난 일본답사

리가 있고 있는 일본에 남겨진 다양한 백제인의 문화유적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대전 중도일보사 송형섭 논설실장이 일본전역을 돌며 취재기 형식으로 구성한 것. 그동안 밝혀진 고대사의 사실과 여행을 하듯 생생하게 그려지는 풍물이 사진과 더불어 쉽고 재미있게 담겨진 이 책은 잃어버린 우리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일본 속의 흥미진진한 백제문화 답사기다. <한겨레 7천원>

#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좋은 책 할인 판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그동안 써주신 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책만을 엄선하여 ‘할인 판매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만물이 깨자리로 란하는 이 깊은 가을, 여시아문에서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경희대 교문에서 남쪽으로 10분, 현대불교신문사 책방 여시아문 조계사

한가로운 도인의 길 김달진역주/세계사/8000 → 5000원	밀교의 역사와 문화 요리토미 모토히로 외/ / 5500 → 3000원	놀라운리니 제이콥슨/ / 3500 → 2500원	김정표/ / 4800 → 3000원
태고집 상서 권/ / 8000 → 5000원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 사토 미츠오/ / 4200 → 3000원	환상의 타임머신 손영성/ / 3000 → 2000원	미륵상생경 외 경전번역모임/ / 2500 → 1500원
선이란 무엇인가 장순용 역음/ / 10000 → 6000원	원호의 인식과 논리 신원숙/ / 3500 → 2000원	금강경 김지현/ / 4500 → 3000원	아미타경 외 / / 2500 → 1500원
대승기신론 마명/ / 8000 → 5000원	불교의 현대적 조명 교수연합회/ / 5500 → 3000원	중화의 지혜 중국민중사상연구소/ / 5500 → 3000원	옥야경, 선생경 외 / / 2500 → 1500원
한산시 김달진 역주/ / 10000 → 6000원	인도 불교의 역사 히라카와 아키라/ / 6000 → 3000원	선정생수의 전개 한보광/ / 5000 → 3000원	유마경 / / 2500 → 1500원
동양의 지혜와 선 삼재용/ / 12000 → 6000원	인도 불교 사상사 에드워드 콘즈/ / 5500 → 3000원	붓다와 다르마 BR 암베드카르/ / 5500 → 3000원	금강경, 승안경 / / 2500 → 1500원
노자 그 불교적 이해 김안대/ / 10000 → 6000원	중국 불교 K.S 케네스 쉐/ / 5000 → 3000원	인식과 초월 핫토리 마사아키 외/ / 4300 → 2500원	지장본원경 외 / / 2500 → 1500원
자아의 책 박철화 옮김/ / 4000 → 2000원	중법연화경 광우/ / 8000 → 5000원	만트라 불교 입문 SB 다스금파/ / 4000 → 2500원	본원행원품, 관세음보문품 외 / / 2500 → 1500원
부처님이 올 수 없는 땅 삼재용/ / 4000 → 2000원	북한의 절과 불교 정태희 외/ / 5000 → 3000원	중국 중세불교 사상 비판 임계유/ / 4500 → 2500원	법구경, 사십이장경 / / 2500 → 1500원
한 그루의 우주 나무와 신화 김영규/ / 4000 → 2000원	법구경 예피소드 정태희/ / 4500 → 3000원	대승불교의 사상 우에다 요시무미/ / 3500 → 2000원	조상공덕경, 조탑공덕경 외 / / 2500 → 1500원
보살은 누구인가 목우/ / 4500 → 2000원	논어와 선 한토 다이가 외/ / 4500 → 3000원	천태 법화의 사상 타무라 시로우 외/ / 4000 → 2500원	부모은중경 외 / / 2500 → 1500원
산거닐기 김달진/ / 3500 → 2000원	푸른 산빛을 깨치고 전보삼/ / 4500 → 3000원	일본 불교사 이영하 옮김/ / 5000 → 3000원	선문선경 조오현/ / 5000 → 3000원
한·중 불교 문화 교류사 황유복 외/ / 15000 → 8000원	불교와 그리스도교 히로사치야/ / 3300 → 2500원	화엄경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불교시대사/6500 → 3800원	행복한 마음 김정실/ 김영사/ 5500 → 4000원
초서자전 권김부/ / 30000 → 15000원	소승 대승 히로사치야/ / 4300 → 3000원	대승기신론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 / 4200 → 2500원	
중국 불교 사상사 키무라 키요타카/ 민족사/ 4000 → 3000원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	불교학개론 강의실 1, 2 강희숙/ / 4500 → 2700원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라 조오현/ / 4500 → 2700원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